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3호 현대불교
2008년 8월 20일(음력 7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번부터는 질문과 토론에 역점을 두자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이렇게 악수가 없으면,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영감받게, 이론으로만 듣지 자기가 실제로 옮겨보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질문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질문을 하시고 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질문자(남) 스님, 항상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촌에 사는 신도입니다. 제가 한마을선원과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러서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수원 지역의 여러 도반들과 법사 스님께서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마음공부의 도리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알고 가야 하고, 깊게 맛보고 더 나아가서는 깨닫고 가야 할 유일한 보물로 생각하고, 크든 작든 간에 생활 속에서 이 법의 도리에 따라 정진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작은 체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합창단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하고는 싶어도 바쁘다는 생각에 갈려 가지고 도저히 입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사업 일로 한 달에도 서너 번씩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입두를 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마음을 진정으로 한번 내어 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 보자.'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딱딱 가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은 다른 약속이나 회사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그 날은 꼭 빠고 가게 되고, 또 저녁에 생기기 많은 약속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연습에는 빠지지 않도록 주인공이 전체를 다 조절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도반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도 안 잘립니까?' 이렇게 농담을 자주 던지곤 합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도 안 잘리고 있고, 합창단에서도 안 잘리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합창단에 가입을 하기 이전에도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간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꼭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었기에 여건은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생각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이 합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작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생각으로 헤아리기보다는 근본 자리인 참주인에게 몰락 맡겨 놓고 저는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속을 때가 많습니까마는 이렇게 살아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여간 든든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월급이 깎인다든지,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해서 다들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주인공 너 아니냐. 네가 잘 인도해!' 하고 주인공에 굳게 맡기고 당당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잊고 넘긴 7월의 달력에 '이 생애에서 한 차원을 더 올려라' 하시는 스님의 법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더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립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빼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돌 아나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돌 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이제 어지간히 좀 알았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여쭙겠 질문 한 번도 해본 예가 없죠, 네? 그게 여러분이 완속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짝이 나서 너풀거리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따랗게 잡는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들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몸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돌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돼야 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국에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돌 아나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

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잡니까, 손이 먼저 잡니까? 마음이 먼저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잡니다. 그게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토론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 텔레비전을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단 얘깁니다. 텔레비전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

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오양"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짐수라고 이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텔레비전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우리가 텔레비전처럼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허(하)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려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놔둘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목도 같은 데 뭘,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아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뭘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또 없어요? 나무들이나 돌이 나 어떠한 거든지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들이 아니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돌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놓으면 손이 돌이 아니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돌 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던 얘깁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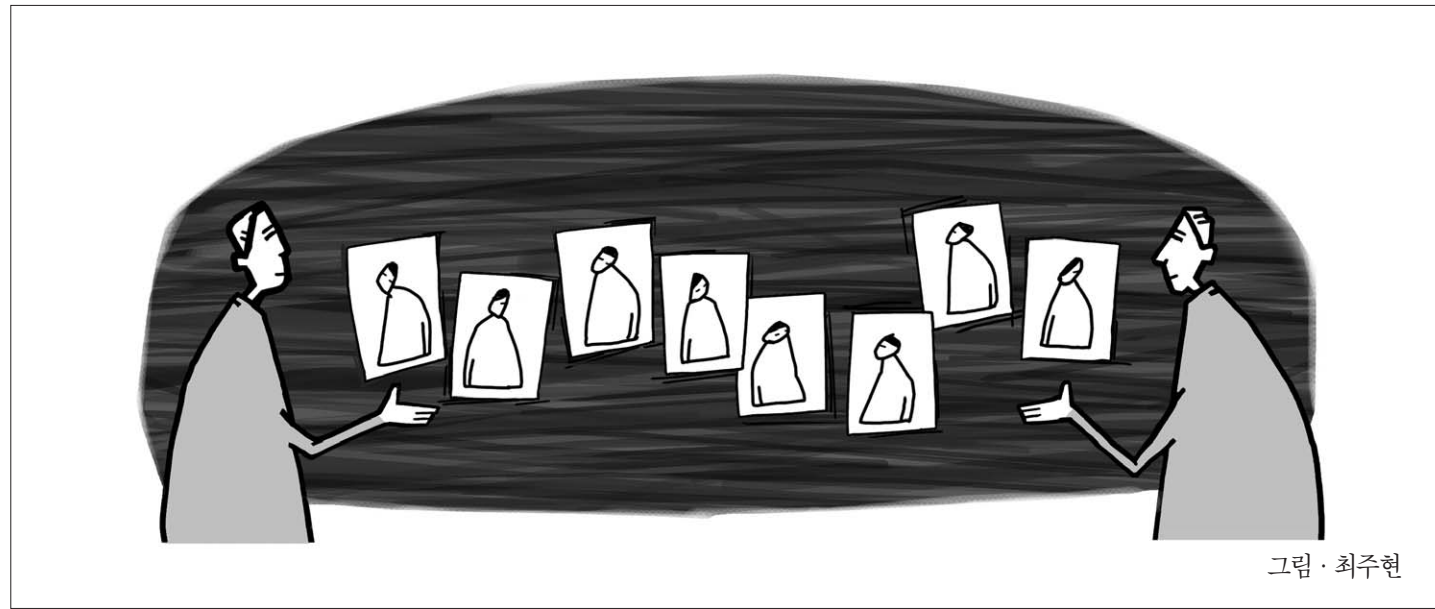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범패작법전수원 2008학년도 후기

수강생 모집

귀의심보 하얗고 사중의 안락과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제, 49제, 사물(태성, 북, 목탁, 요령) 다루는법 등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불교의식을 모 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기초재의식반

▶ 수업일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3시
▶ 수업내용 : 기초반 -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아침송구 등 재의식반 - 49제, 천도제, 잠안의식, 구명사시
작법 - 바라춤:오잡바라, 화의재바라, 관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나비춤:사방요신, 도량계, 다계, 음남, 운심계

▶ 수업기간 : 1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목탁, 요령, 바라
▶ 개 강 일 : 8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재의식전문반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수업내용 : 범패 - 걸채비, 안채비, 짓소리(소리와 태칭하는법 위주) 강외의 작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명바라, 관음계바라, 화의재바라, 법고무, 도량계, 다계, 운심계, 음남, 모란찬, 기경이, 구원결중, 오공양, 육법공양, 향화계

▶ 수업기간 : 6개월(기초의식을 필한자)
▶ 준비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성, 바라
▶ 개강일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문의전화 : 033)731-7759 / 011-269-4168

송원사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 1C-문막방향 3분거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지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범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입 중 안 내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종 정 청암	부 종 정 화주
총무원장 지공	원로의장 청해
감사원장 만봉	총회회장 보광
교육원장 지원	총회부회장 관불
사정원장 일현	총회의원 진광
호법원장 거승	포교원장 원각
문화원장 덕호	복지원장 법성
총무부장 석문	재무부장 지호
감찰부장 지인	홍보부장 도일심
문화부장 용기	의전부장 혜오
섭외부장 성화	

● 각 지역구 총무원장을 모집합니다
● 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 총무원 : 울산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전화 052)293-7328 핸드폰 011-556-5507